‘언론보도 법적분쟁’ 사전 예방·해결방법 강의…광주일보 사별연수

광주일보사는 14일 광주시 동구 SC제일은행 빌딩 9층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2022년 4차 사별연수를 진행했다. 〈사진〉

이날 연수는 손정배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사무소장이 강사로 나서 ‘언론보도와 법적분쟁’을 주제로 강연했다.

손 소장은 언론보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손 소장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언론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기사의 유형을 소개하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인 명예훼손 그리고 재산권, 사생활, 음성권, 성명권 침해에 대한 설명과 최근 부쩍 늘어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언론중재위원회 소개와 언론조정절차를 안내하며 앞서 발생했던 언론분쟁을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법에 대해 얘기했다. 특히 언론분쟁에서 언론사가 승소 혹은 패소했던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며 이해를 도왔다. 판례를 통해 대략적인 공인의 범위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언론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도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한편 손정배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사무소장은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 홍보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0년 12월부터 광주사무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의초 김경노 교장, 신안군에 부임 축하 쌀 기부

신안군 신의초등학교 김경노 교장은 최근 신안군(군수 박우량)에 쌀 60포(600㎏)를 기부했다. 〈사진〉

이달 초 신의초등학교로 부임한 김경노 교장은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로 신안군복지재단(이사장 박균보)을 통해 신의면에 지정 기부했다. 기탁된 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 및 경로당에 전달됐다.

김경노 교장은 “부임을 축하해준 분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쌀을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어 고맙고 기쁘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청송학원 정원장학복지재단, 숭덕고 재학생에 장학금

학교법인 청송학원 김용만 이사장이 최근 정원장학복지재단을 통해 숭덕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 정원 장학금 총 3400만 원을 지급했다. 〈사진〉

숭덕고에 따르면 2학기 정원 장학금은 숭덕고 1학년 11명, 2학년 11명, 3학년 12명 등 총 34명에게 개인당 100만원씩 전달됐다.

정원 장학금은 성적 우수 장학생과 독서 장학생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서 실력을 기르고, 독서를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추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

김용만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자신을 이겨내고,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둔 장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다가올 미래 사회에 선두주자로 나아가는 자긍심을 기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정원(正元)장학복지재단은 학교법인 청송학원 숭덕고 설립자 김길수 선생이 부모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0년 3월 사재 3억 원을 출연해 설립됐고, 현재 총 110억 원의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담양출신 여승구 화봉문고대표 별세

우리 책 문화를 널리 알려온 국내 최고의 고서 수집가 여승구〈사진〉화봉문고 대표가 별세했다. 향년 86세.

담양 출신의 고인은 지난 고인은 1955년 광주고를 졸업한 뒤 서울의 한 고서점에서 일하며 책과 인연을 맺었다. 중앙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면서는 서점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다.

고인은 1963년 화봉문고의 전신인 ‘팬아메리칸 서비스’를 설립해 외국의 서적, 학술 잡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등을 수입해 판매했다. 1975년에는 독서 운동지 월간 ‘독서’를 발행하는 등 출판업도 겸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고인은 국내 고서 문화 발전에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고인은 1980년대 이후 ‘고서동우회’, ‘한국고서협회’ 등에서 활동하며 근현대 시집, 잡지 희귀본 등 다양한 고서를 수집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적십자, 은광학교 학생들 생존수영 실기 교육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은광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진〉

생존수영 실기교육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안전 취약계층인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적십자 안전교육 보급을 통해 수중활동 시 자기 생존법을 습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획됐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물놀이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안전강사와 시각장애학생 1대 1 맞춤형 교육을 통해 물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자기 생존능력을 배양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비밀의 집(재)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으라차차 내 인생(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네 한 바퀴(재) 55 영 앤 리치(재)	00 황금가면 스페셜(재)	30 반짝이는 프리채널3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50 리슨 업(재)	00 12 MBC 뉴스 20 빅마우스(재)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오늘의 웹툰(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2시 뉴스 외전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30 영상앨범 산(재)		00 뉴스브리핑
3	00 브레드 이발소 3 15 신비아파트 고스트볼Z 귀도퇴마사 45 다이노 파워즈	00 KBS 뉴스타임 10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생방송 현장 리포트(날)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뾰족뾰족 포크가족 15 니니 뭐하니? 30 놓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아머드 사우루스 2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20 닥터 365 25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황금가면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비밀의 집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으라차차 내 인생	30 홍김동전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50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00 다큐 M	00 판타스틱 패밀리-DNA 싱어
10	00 한식 연대기 50 더 라이브		00 심야괴담회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00 연중 플러스	20 문화콘서트 난장	
12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통합뉴스룸 ET(재)	30 광주MBC 보다 스페셜 40 놀면 뭐하니? 스페셜	00 나이트라인 30 싱싱! 고향별곡(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하프와 친구들
07:45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저스
08:35 한글용사 아이야
08:5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재)
09:05 최고다! 호기심딱지
09:20 EBS 친구들 씽씽
09:30 어떻게 만들까
09:40 우리집 유치원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EBS 교육진단
13:00 당신의 활력충전소
13:50 명의
14: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5:35 꾸러기 천사들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16:15 페파 피그
16:25 한글용사 아이야(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17:30 시몽
17:45 한자로 통(通)하는 삼국지
18: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19:00 머털도사
19:30 한국의 둘레길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세계테마기행
〈사람이 좋아서,중앙아시아 -자연을 닮은 사람들, 키르기스스탄〉
21:30 한국기행
〈작은 마을에 삽니다 4부 우리들의 블루스, 젓떼기마을〉
21:50 이것이 야생이다 3
22:45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5일(음 8월 20일 辛未)

☎010-9790-8237

子 36년생 대강 어림잡아도 틀림없을 것이니 속도를 내자. 48년생 평시에 가져왔던 의문이 풀리리라. 60년생 규칙적이고 적당해야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72년생 무리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하겠다. 84년생 대체로 순류를 타게 되지만 변수도 보인다. 96년생 걱정할 필요 없으니 마음 푹 놓고 있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5, 63

丑 37년생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작용하고 있느니라. 49년생 크게 상관될 바가 아니니 기존의 도량대로 추진하라. 61년생 임시방편적이라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느니라. 73년생 기존의 틀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85년생 본디대로 대함이 나을 것이니라. 97년생 핵심 내용에 부실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1, 87

寅 38년생 해묵은 일이 처리되는 명쾌함이 있도다. 50년생 일상에 충실하다 보면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62년생 어긋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74년생 주체에 따라서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클 것이다. 86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일관되어야 성취할 수 있다. 98년생 합리적이어야만 설득력이 있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4, 68

卯 39년생 처신을 잘한다면 따르는 이가 많으리라. 51년생 달갑지 않은 것으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느니라. 63년생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75년생 꼼꼼한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쉽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87년생 남의 일에 나서면 무조건 손해이다. 99년생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6, 80

辰 40년생 점점 줄어들어서 상당히 부족하니 속히 보완토록 하자. 52년생 예전과 같지 않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라. 64년생 어떠한 대국에 임하더라도 기본 구도를 고수하라. 76년생 뻔히 알면서도 빠져드는 안타까움이 있도다. 88년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이 용이하다. 00년생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48, 94

巳 41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모두 생길 수도 있음을 감안하라. 53년생 탐스러운 결실이 열리기 시작하는 세계이니라. 65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발단이 될 것이다. 77년생 일정 기간 동안은 무사태평하게 될 것이다. 89년생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이다. 01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껏 행하라. 행운의 숫자 : 14, 54

午 42년생 지금 바로 잡아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54년생 기본적인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66년생 상호 공생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78년생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라서 충격이 클 수다. 90년생 사실은 별것 아니니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02년생 대상의 선별에 신경을 써라. 행운의 숫자 : 01, 96

未 43년생 기억에 영원히 각인될 수 있는 일이 생기리라. 55년생 통상적인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67년생 소상하게 알기 전까지는 속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79년생 안정된 마당이 되어야 집중할 수 있겠다. 91년생 빠른 속도로 행운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03년생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함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2, 77

申 44년생 과감한 결단을 한다면 발전을 도모할 것임이 틀림없다. 56년생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68년생 낮추어 보다가는 큰일나는 수가 있다. 80년생 의외의 현상이 나타나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92년생 위기를 기회로 급반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04년생 필히 상호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9, 57

酉 33년생 당연시해 왔던 것 속에 문제점이 만연해 있다. 45년생 순조로워서 경사가 겹칠 수도 있다. 57년생 이변을 자초하는 동세가 돼버릴까 두렵다. 69년생 실익을 잘 따져서 값진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1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이 깃드는 양태이다. 93년생 별것 아니니 놀랄 것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25, 90

戌 34년생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인내로써 일관해야 할 처지로다. 46년생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평상심을 유지하라. 58년생 활동 영역이 넓어지거나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70년생 드디어 수습 대국으로 접어들겠다. 82년생 겸손함과 검소함 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94년생 앞당겨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9, 88

亥 35년생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때다. 47년생 고민하지 말고 상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59년생 사소한 원인도 경시하지 말고 예의 주시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71년생 가재는 게 편임을 알고 절대로 방심해서는 아니 된다. 83년생 현태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95년생 체계적이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0, 51